이안의 Media In Buddha ❶ 영화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



▶**이안 영화평론가는** 서울대에서 미학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서 영상문화이론과 영화학을 전공했다. 다양한 매체에서 영화를 소개하는 평론가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성공회대에서 영화에 대해 가르치는 강사이자 독립 다큐멘터리 〈나의 노래: 메아리〉를 제작한 프로듀서다. 현재 춘천SF영화제 운영위원장이자 프로그래머로 활동 중이다.

빈 화폭에 방울방울 맺히는 화두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화두와 선문답 가운데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진 물음이다. 어떤 스님이 이같이 묻자 조주 스님은 '없다' 고 답했다. 그런데 이 답 자체가 화두가 되는 선문답의 예가 되곤 한다. '모든 생명체에게 불성이 있다' 는 부처님 가르침을 모를 리는 없으련만 구태여 질문을 던진 스님이나 선지식으로서 '없다' 고 답한 조주스님이나 만물이 불성을 품었다는 가름침을 귀히 여겨 불문에 들었을 터이다.

조주 스님이 어떤 분인가? 778년에 태어나 120세에 선종하기까지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如何是祖師西來意)' '뜰 앞의 잣나무로다(庭前栢樹子)' '개에게도 불성이 있을까(狗子還有佛性也無)' '없다(師云無)' 같이 선이 뭔지 잘 모르는 일반 대중도 한 번은 들어본 유명한 화두를 남긴 바로 그분이다. 당나라의 공안 1700칙 가운데 가장 뛰어난 100칙이 실린 〈벽암록〉은 '안개 낀 바다의 나침반, 밤길의 북두' 라고 일컬어질 정도여서 송나라 시대에 수좌들이 이 책만 들여다보며 외우는 바람에 그러다 선이 형식화될까 저어한 대혜종고 스님이 책들을 다 거두어 불태웠다는 일화가 있을 만큼 선가에 끼친 영향력이 절대적인 선사다.

그런 조주 스님이 왜 개에게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화두는 불립문자, 언설과 문자가 지니고 있는 형식과 틀에 집착하거나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언어 이전의 소식이다. 그러니 말이나 글이 아니라 다른 형식으로 화두를 잡고, 치열하게 경계를 넘고, 자신를 넘고, 세상을 넘는 방법에는 선문답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가령 그림이나 음악, 영화도 화두와 선의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영화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는 평생에 걸쳐 그림이라는 방식으로 화두를 파고들어 경지를 이룬 대가로 잘 알려진 화가 김창열에 대한 영화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두 사람이다. 김오안과 브리지트 부요 감독, 이 둘 가운데 김오안 감독은 화가 김창열의 아들이다.

프랑스 이민자의 아들로서 국제결혼한 가정에서 자란 김오안 감독은 한국말이 어렵다. 외국에서 태어나 외국 교육을 받고, 외국 생활을 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아버지를 둔 아들은 어머니의 말인 프랑스어가 더 익숙할 밖에. 영화를 처음 시작하던 무렵의 김오안 감독은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영화를 완성하고 한국 영화제에도 오고, 개봉도 하고, 한국 관객들도 만나는 과정에서 이제 느릿느릿하더라도 또박또박 한국말로 답을 하고자 한다. 김오안 감독이 브리지트 부요 감독과 프랑스어로 대화를 나눌 때나 또다른 외국어인 영어로 묻고 답할 때 보면 원래 말이 아주 느린 사람은 아닌데, 한국어는 발음 하나하나 단어 한마디 한마디 꼭꼭 눌러 말한다.



영화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 한 장면.

그만큼 잘, 제대로, 바르게 전하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이 영화의 만듦새 또한 딱 김오안 감독의 한국말과도 같다. 평생을 침묵하며 내면의 진심은 오직 그림, 그것도 물방울 그림으로만 표현하는 아버지에 대한 영화를 만들면서, 아버지가 왜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를 묻고 또 묻는다.

침묵과 물방울, 빈 화폭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 말 없는 일상과 살아서 이미 세계적 화가로 명사가 된 셀러브리티의 사회적 모습. 영화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에는 이 사이에 주름져있는 결을 들추고, 그 결들 아래 묻혀있던 질문을 던진다. 김오안 감독은 아들로서 화자가 돼, 때로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때로는 '물방울 화가' 인 아버지 김창열 화백에게 직접 질문을 던져 어떻게든 언어화된 대답을 듣고자 하고, 때로는 미뤄 짐작하는 답을 자료 화면들 속에서 건져 올린다. 이런 방식으로 김창열 화백이 작고하기 전 마지막 6년간 집요하게 묻고 또 무는 과정이 이 영화에 담겨있다.

"아기, 전부 하얗게, 한 남자가 상자를 들고 와. 상자 안에는 비밀이 있지"라는 답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 그 상자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이 아버지의 심연이다. 이 영화는 혼자만의 화두로 심연과 맞서는 아버지를 둔 아들이 아버지라는 심연을 화두로 삼은 선문답의 과정이며, 투명하고 어떤 의미도 담은 것 같지 않은 물방울로 유명해진 화가가 왜 물방울만 그리고 또 그렸는지, 그 치열한 수행의 과정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인 1929년 평안남도 맹산에서 태어난 청소년 김창열은 한국전쟁 발발 전에 38선을 넘었다. 청년이 된 김창열은 서울대를 다니던 시기에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폭격과 총격이 난무하던 시기, 바로 앞에서 폭탄이 터져 김창열 화백 앞에 있던 남자가 박살이 나는 모습도 보았고, 탱크 바퀴에 머리가 깔려 형체가 무너진 주검도 보았다. 그 전쟁 중에 중학교 동창 가운데 반 너머가 죽었다. 살았다는 안도감보다 혼자 살아남았다는 큰 죄책감에 평생 짓눌려 왔다는 고백을 들을 때, 해탈한 듯 보이던 화가에게 인간적인 연민과 공감을 느끼게 된다. 그 연민과 공감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다.

> **"아들 김오안 씨 공동 감독 나서 물방울 그림 그려온 김창열 화백 마지막 6년간 면면을 필름 담아 심연과 맞서는 아버지를 화두로 아들은 선문답 같은 대화 이어가"**

비참하고 가혹한 시대를 겪은 뒤 화백은 한국을 떠나 뉴욕을 거쳐 프랑스에 정착하게 된다. 거기서 김오안 감독의 어머니가 된 반려도 만나고 물방울도 만났다. 고향을 잃고 고국을 떠난 이민자 청년에게 어느 순간 물방울이 맺혔다. 하나의 물방울이 수 천, 수 만, 수 억의 물방울이 되었지만 그 물방울들은 아무리 많아도 고향으로 가는 물길을 열지 못했다.

김창열 화백은 감독인 아들에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고향 맹산이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했지만 화백이 세상을 뜨고, 영화가 마무리되기까지 프랑스 국적을 가진 아들인 감독이 백방으로 노력해도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감독은 아버지를 '산타클로스가 아닌 스핑크스' 였다고 한다. 도통 말이 없이 어쩌다 한 마디 던지는 말이 어려워서도 그랬겠지만 잠자리 머리맡에서 사랑스럽고 행복한 동화 대신 달마 대사 이야기를 들려주던 아버지였다니! 달마대사는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잠들지 않으려고 스스로 눈꺼풀을 자르고 부릅 뜬 눈으로 깨어있으면서 9년간 빈 벽을 마주하고 수련한 선사, 화두를 잡고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버리고 또 버린 지독한 수행의 표상이 아니던가.

김오안 감독은 한국에 와서 지금 관객들을 만다고 있다. 한 관객이 물었다. 인터뷰 장면에서 왜 그렇게 카메라를 바짝 들이댄 얼굴 클로즈업으로 연출했냐고. 감독이 말하기를 워낙 말도 많지 않고 표정에도 변화가 거의 없는 분이라 카메라로 크게 잡으면 작은 감정 표현이라도 잡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란다.

김창열 화백은 마치 일에 쫓기는 노동자처럼 날마다 아침부터 밤까지 그림에 매달렸다고 한다. 거의 말을 하지 않으면서. 아들은 그 침묵 앞에 카메라를 들고 대답을 기다린 것이다. 프랑스에 살고 있던 김오안 감독은 한국에 돌아와서 따로 살고 있던 아버지를 만나러 종종 한국에 오곤 했다. 그러던 시기인 2015년부터 촬영을 시작해 2019년 최종 편집을 마쳐 완성되기까지 평소 궁금하던 질문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카메라를 들었지만 영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특별한 관계가 대상을 미화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는 부담을 느끼면서 오래전부터 사진작가로서 공동작업을 해왔던 브리지트 부요가 공동감독으로 참여하게 됐다. 브리지트 부요 감독은 아들이라는 입장을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아들이기에 볼 수 있는 순간과 아들과만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이끌어내라는 조언으로 김오안 감독이 적극적으로 대화와 영화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끌었다.

그렇게 해서 김오안 감독은 6년의 세월 동안 '아버지' 라는 화두를 잡을 수 있었고, 한국을 오가며 아버지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한국말을 익히게 되었고, 지금 관객을 만나면 통역을 거치지 않고 되도록 한국말로 듣고 답하려 한다. '한국' 이라는 화두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으며, 그 안에는 역사와 시대가 있다. 관객은 그 역사와 시대를 영화라는 선문답 없이는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저 미술 실력 뛰어난 유학생이 20세기에 유행한 추상미술을 선택해서 어쩌다 그린 물방울이 우연히 서양 미술계에서 주목을 받아 돈과 명예를 거머쥐게 된 화가로 짐작할 수도 있었다. 미술 시장에서 물방울이 잘 팔리니까 계속 물방울만 그린 건 너무했다고 오해할 수도 있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너무 유명하고 너무 성공해서 자신의 이름을 건 미술관까지 헌정 받았으니까.

이 영화가 없었더라면 그런 오해가 있건 말건 침묵의 화가, 물방울만 그리는 화가를 우리도, 아들도 영영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감독의 화두가 된 아버지는 아버지의 화두가 된 물방울의 의미를 찾아 관객에게 전해주는 질문을 던졌고, 이 작품을 본 관객들은 그 물방울이 어떤 비명, 어떤 고통, 어떤 상처인지 짐작하게 됐다.

스핑크스가 수수께끼를 던지는 것은 사실 답을 듣고자 함이었던 것이요, 불가에서 화두를 던지는 것은 경계를 넘어 스스로 깨우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그래서 화가의 작품도 보고 싶어진다.

영화의 개봉에 발맞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성곡미술관에서는 9월 2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영화 제목과 같은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 사진전이 무료로 열리고 있다. 영화를 연출한 두 감독은 사진작가로서 이 영화와 관련된 사진과 영상 50여점을 전시하며 김창열 화백의 아내이자 김오안 감독의 어머니이며 영화의 제작자로 참여한 김마르틴이 작성한 글 등 다큐멘터리에 다 담기지 못한 다른 자료도 함께 볼 수 있다. 물방울, 그저 표면이 아니라 심연인 그 화두를 직접 보시기를.

〈영화평론가〉



